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



책 소개

금원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집안일을 배우지 않고 책을 보며 자랐어요. 어느덧 열네 살이 된 금원은 열다섯이 되면 기생이나 양반집 소실이 되어야 하는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금원은 여자로서 소양을 갖춰 가는 동생과 친구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들처럼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찾고 싶던 금원은 다른 사람들은 뭘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 여행을 결심했어요. 여행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남장까지 한 끝에 마침내 넓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과연 금원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홀로 여행을 떠나 금강산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역사의 책갈피에 숨어 있는 옛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인물 도서관' 시리즈 네 번째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은 여자가 여행을 하기 어려웠던 조선 시대에 남장을 하고 홀로 여행을 떠났던 열네 살 소녀 김금원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역사 동화입니다. 집 안에 머무르던 김금원이 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여행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를 따라가며 김금원의 당찬 모습과 성장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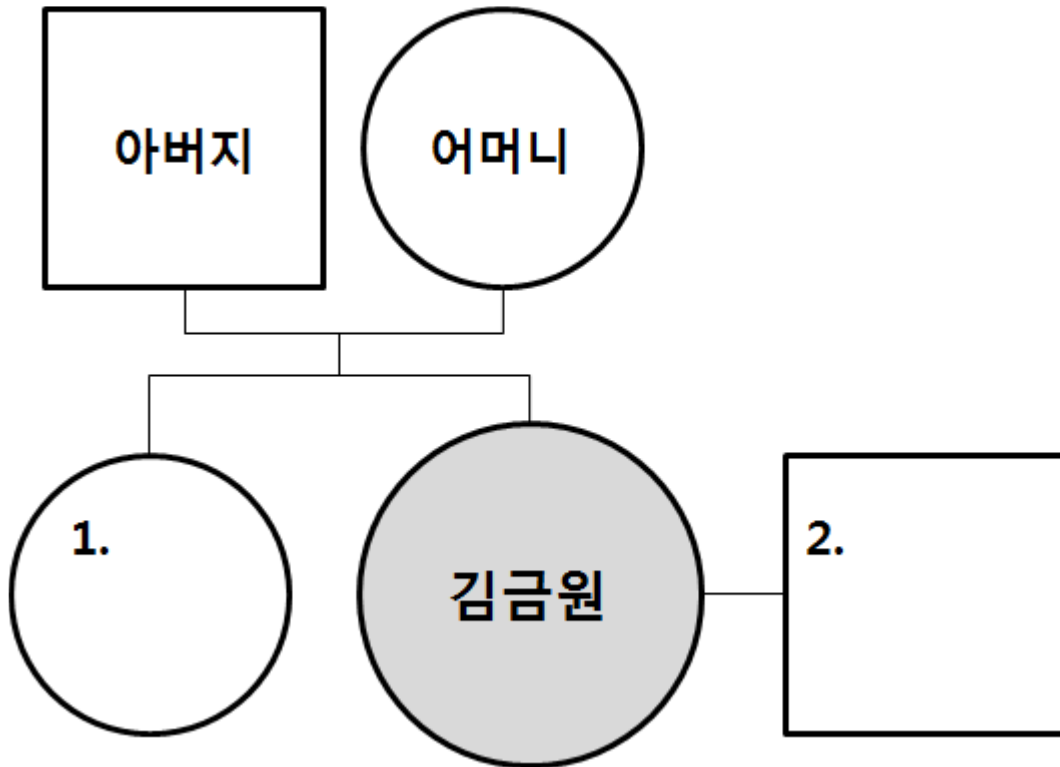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	----	--------------------------------------

작품 키워드

#금강산 #유람 #여행가 #삼호정_시사 #호동서락기 #김금원 #서얼_제도

 <p>독서단원 -독서 전</p>	<p>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p>	<p>초등학교 _____</p>
	<p>(인물 관계도)</p>	<p>학년 반 번 _____</p>
	<p>글 : 강민경 그림 : 파이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이름 : _____</p>

책을 읽기 전에 조선 시대의 인물을 조사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인물 설명]

1. 김금원의 동생이에요. 김금원이 만든 시 모임에서 운초, 경산, 죽서와 함께 활동한 문인이었지요. 김금원이 여행 후 펴낸 책의 발문을 썼는데, 김금원의 여행과 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 주천 홍태수의 소실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2. 김금원의 남편이에요. 1845년에 종이품 의주 부윤으로 임명되어 김금원과 함께 의주로 갔지요. 덕분에 김금원이 관서를 여행할 수 있었어요. 임기를 마치고는 한양으로 돌아와 용산에 자리 잡고 김금원과 함께 생활하다 세상을 떠났지요.



독서단원
-독서 중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
(낱말 퍼즐)

글 : 강민경 그림 : 파이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을 읽고, 다음 낱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②		③			④			⑤
①									
						⑥			
									⑮
				⑩		⑦			
			⑪						
⑧		⑨				⑬		⑭	
				⑫					

가로

- ① 김금원이 여행하며 지은 시와 기행문을 모아 1851년에 펴낸 책
- ④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괴상하게 생긴 돌
- ⑥ 짚, 띠 등으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 ⑦ 양반과 양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서자녀와 양반과 천민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열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⑧ 김금원의 남편 김덕희가 용산에 자리 잡고 지은 별장 이름
- ⑪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 ⑫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등이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거나 빵을 굽는 기구
- ⑭ 절에서 쓰는 스님의 공양 그릇

세로

- ②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여덟 개의 명승지
- ③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 ⑤ 스님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 ⑥ 조선 시대에,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 ⑨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궁전
- ⑩ 조선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거처를 제공하며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 주는 일을 하던 집
- ⑪ 시인들이 만든 문학 단체
- ⑬ 여자가 지내는 방
- ⑮ 한 개의 통나무로 놓은 다리

 <p>독서단원 -독서 중</p>	<p>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p> <p>(독서 퀴즈)</p> <p>글 : 강민경 그림 : 파이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초등학교</p>
			<p>학년 반 번</p>
			<p>이름 : _____</p>

1.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을 읽고, 이야기 속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시간 순으로 채워 봅시다.

금원이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다.	→	금원이 의림지에 들러 생선회를 먹다.	→	①	→	금원이 선암에 들러 화공의 이야기 솜씨에 감탄하다.
						↓
금원이 지장암에 들러 스님들이 끓여 준 국수를 먹다.	←	금원이 유누와 함께 표훈사로 향하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	②	←	금원이 멧돼지에게 쫓기다.
						↓
③	→	금원이 관왕묘에서 소원을 비는 소년을 만나다.	→	금원이 동생, 벗들과 시 모임을 만든다.	→	④

[보기]

- | | |
|---------------------------|-----------------------------|
| ㉠ 금원이 여행했던 일을 책으로 써내다. | ㉡ 금원이 차 끓이는 아이와 《명심보감》을 읽다. |
| ㉢ 금원이 단발령에 올라 금강산을 내려다보다. | ㉣ 동자승이 금원에게 차를 만들어 주다. |
| ㉤ 금원이 순채 화채를 맛보다. | ㉤ 금원이 불지암에 들러 감로수를 마시다. |
| ㉦ 금원이 혼인하다. | ㉦ 금원의 부모님이 남장한 금원을 보고 놀라다. |

2. 금원의 부모님은 왜 금원에게 바느질이나 부엌일을 가르치지 못했나요? (10쪽)
()

3. 다음 내용을 읽고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 (28쪽)

“저는…….”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입을 떼었다.
 “금원의 길을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금원조차 놀란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금원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운명에 떠밀렸지만 금원이는, 제 딸은 한 번이라도 자기 길을 가 보게 하고 싶습니다.”

- ① 금원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기생이 되어야 했다.
- ② 금원의 아버지는 금원의 어머니를 소실로 맞았다.
- ③ 금원의 어머니는 여자가 글을 잘 짓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 ④ 금원은 보고 싶은 것들을 다 보겠다고 다짐했다.
- ⑤ 경춘은 솜씨 좋은 기생이 되거나 양반집 소실이 될 수 있다.

4. 금원은 왜 가마꾼의 말을 못 들은 척 했나요? (33쪽)

“자, 출발합니다요.”

가마를 잡고 가는 가마꾼들이 끄응 하고 가마를 들어 올리더니, 허탈하다는 듯이 허허 웃었다.

“아이고, 도련님. 밥을 많이 드셔야겠습니다. 가마가 영 가볍습니다, 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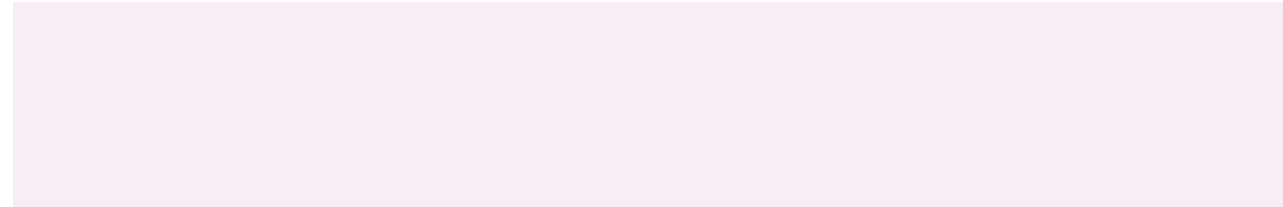
금원은 못 들은 척 앞만 바라보았다.

()

5. 왜 할머니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을까요? (45~46쪽)

“그리 생각해 주면 고맙지요. 이렇게 주름지고 거친 손이지만 그래도 오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손님들이 든든히 속을 채워 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헛살지는 않았구나 싶어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뿌듯함이 묻어 나오고 있었다.



6.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51~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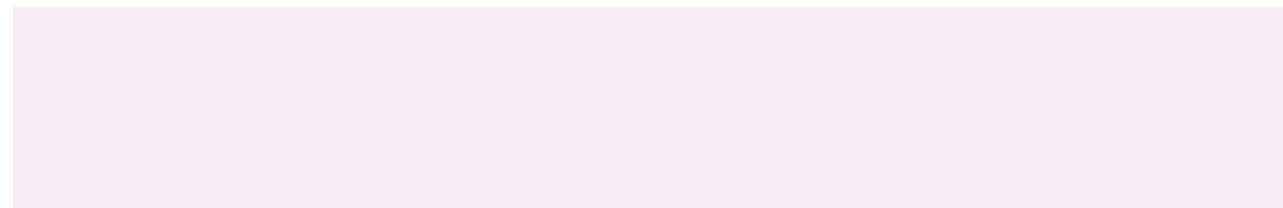
옛날 한 나무꾼이 이 산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할아버지 두 분이 바둑 두는 걸 보게 되었던 말이지요. 할아버지들의 바둑 실력이 뛰어나기도 했고, 바둑이 워낙 재미있어서 이 나무꾼은 나무하러 온 것도 잊고 그 옆에 주저앉아 그 바둑판을 구경했더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훈수를 두면서 말입니다.

바둑 한 판이 끝나니 문득 날도 저문 것 같고,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 옆에 내려둔 도끼자루를 들었는데! 푹! 도끼자루가 썩어 힘없이 후두두 부서지는 게 아니겠소? 나무꾼이 깜짝 놀라 다시 보니 도끼자루는 가루가 되어 없어지고,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들도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나무꾼이 그제야 할아버지들이 신선인 줄 알고 무릎을 탁 쳤다는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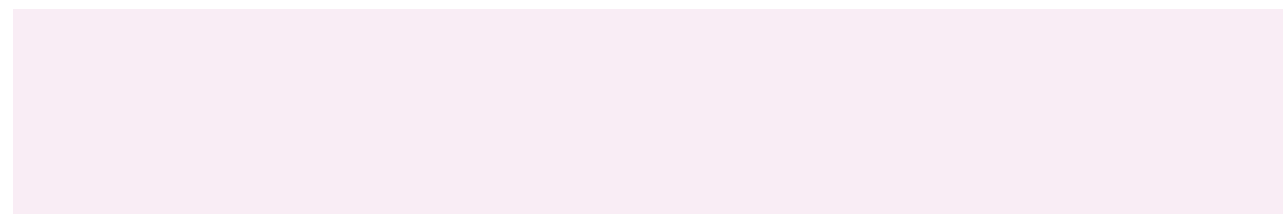
7. 금강산 풍경을 바라보는 금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3쪽)

단발령을 꼭꼭 밟고 서 있던 금원은 아예 단발령에 다리를 펴고 앉았다.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이곳의 풍광을 그저 후루룩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았다. 1만 2천 봉을 하나하나 살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되도록 오래 보고 싶었다. 금강산 여행을 처음으로 하는 조선의 여성 여행가라는 생각도 금원을 그 자리에 묶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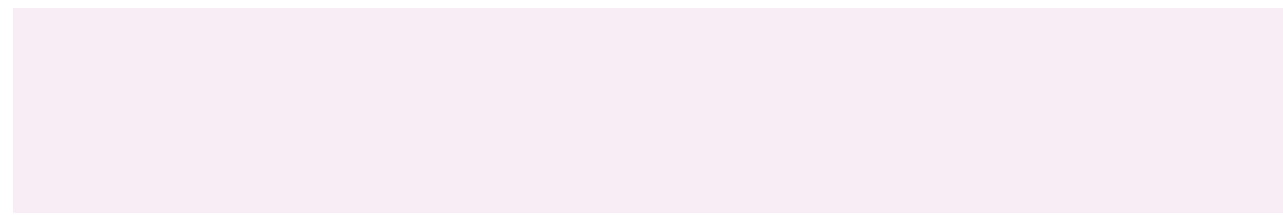
8. 유누는 왜 자신은 한번 떠나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81쪽)

“그럼 떠나시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금원의 말에 유누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금원은 자신이 길을 떠났듯이 유누도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도록 응원해 주고 싶었다.
“저는 한번 떠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유누가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금원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무 말도 유누에게 보태 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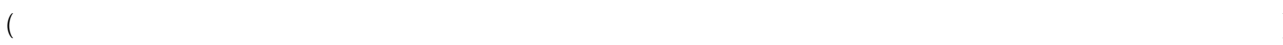
9. 스님은 왜 유누가 금원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84쪽)

“있는 길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길을 만들면서 가시는 것이겠지요. 저 아이의 길 또한 만들어 주신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원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스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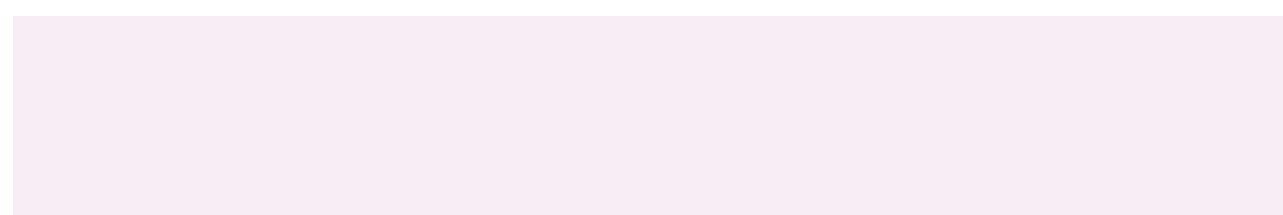
10. 남자는 왜 가려움증 덕분에 자신이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나요? (101쪽)

“이까짓 가려움증이야 좀 불편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 가려움증 덕분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11. 스님은 금원에게 왜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말했을까요? (109쪽)

“이곳을 찾아 주시고 이곳을 거쳐 자기 길을 찾아 가시는 보살님 같은 분들이 진짜 보물이지요. 감히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금원은 주지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세상 어떤 보물도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뜻인 듯했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모자), △△△(옷) 이름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써 보세요. (122쪽)

소년은 곧장 관왕묘 정전[●]의 옆쪽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금원도 소년을 따라 문으로 들어가니, □□□[●]을(를) 쓰고 △△△[●]을(를) 입은 관왕이 앉아 있었다.

● 정전(正殿) : 왕이 나와서 조회를 하던 궁전

● □□□ : 왕과 왕세자가 △△△을(를) 입고 일할 때 쓰던 관. 앞 꼭대기에 턱이 저서 앞이 낮고 뒤가 높음.

● △△△ : 임금이 입던 격식을 차린 옷. 누런빛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으며,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음.

[보기]

□□□	△△△
탕건(宕巾), 전립(戰笠), 익선관(翼善冠), 초립(草笠), 정자관(程子冠), 패랭이	상복(喪服), 대례복(大禮服), 당의(唐衣), 곤룡포(袞龍袍), 혼례복(婚禮服), 백관복(百官服)

(/)

13. 다음 내용을 읽고 경춘이 말한 '뛰어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고르세요. ……………() (131쪽)

“나는 내가 유람한 일을 책으로 쓰고 싶어. 아니 꼭 쓸 거야. 벌써 제목도 정해 뒀어.”
 금원의 말에 경춘의 눈이 동그아졌다.
 “정말요? 언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오래되었지. 금강산에서 돌아올 때부터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지은 시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 거군요.”
 금원을 바라보는 경춘의 눈빛이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언니는 항상 저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정말 대단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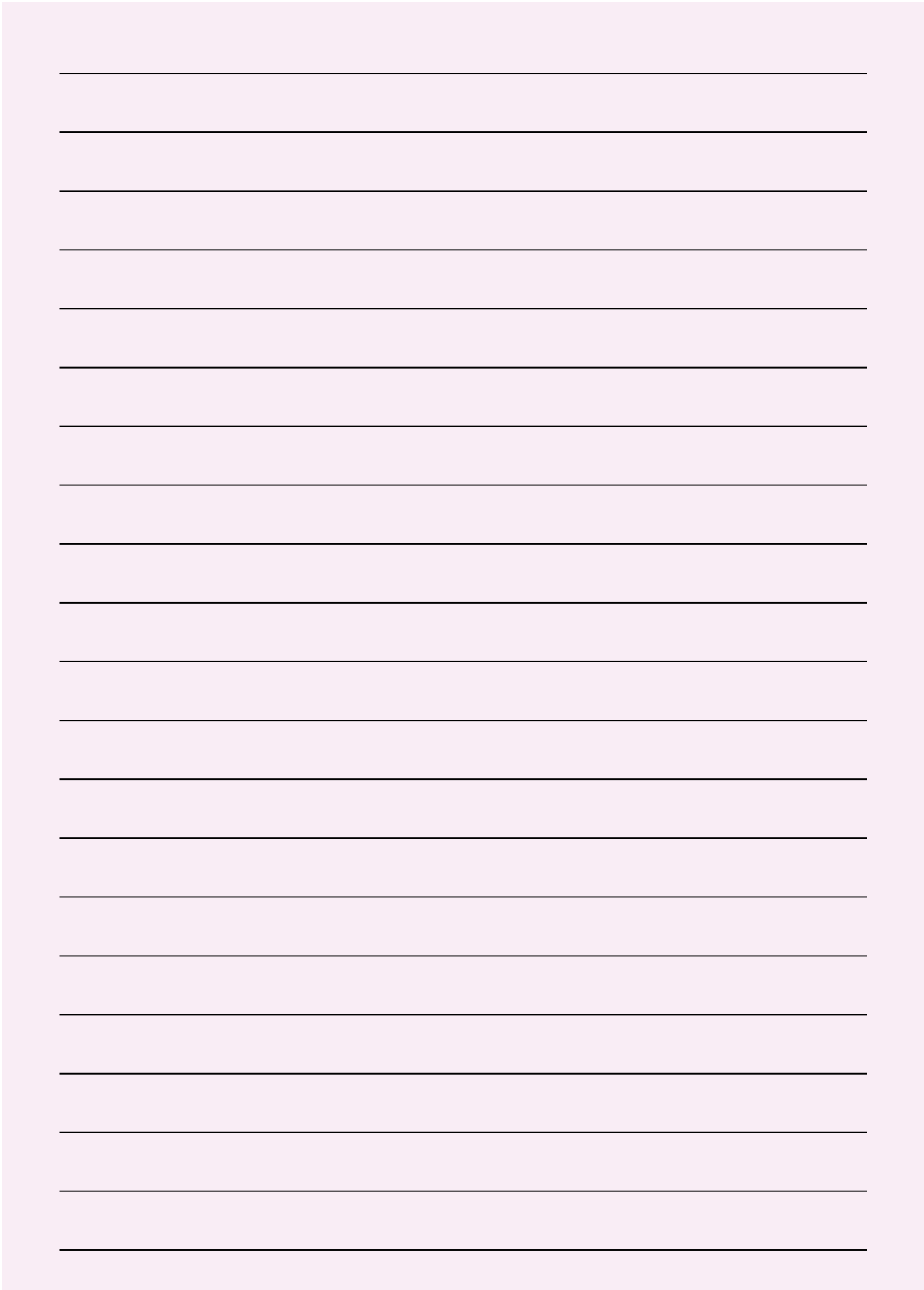
- ① 도둑이 담을 뛰어넘었다.
- ②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값진 것이다.
- ③ 그는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을 했다.
- ④ 한 계급을 뛰어넘어 승진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 ⑤ 그는 도량을 뛰어넘다가 도량에 빠지고 말았다.

14. 다음 내용을 읽고 금원의 가족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을 고르세요. ……………() (136~137쪽)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어요. 정식 혼인은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했으며 자식은 부모의 신분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모두 같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조선에는 한 남편이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두는 혼인 제도인 일부다처제가 있었는데, 소실의 자식은 본처인 정실의 자식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어요. 양반보다 낮은 계급의 여자가 소실이 되었는데, 소실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본가에는 정실이 있었기 때문에 소실은 남편을 떠나 자식과 함께 따로 나와 살았어요. 소실의 자식인 서자와 서녀는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었지요. 심지어 어머니가 노비 같은 천민 출신인 열자와 열녀는 아버지를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소실의 자식을 차별했던 서얼 제도에 따라 서얼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차별을 당했어요.

- ① 도진 : 기생 출신인 금원의 어머니는 양반인 금원의 아버지와 정식 혼인을 할 수 없었을 거야.
- ② 은서 : 소실이 된 금원의 어머니는 양반보다 낮은 신분이었어.
- ③ 재우 : 금원과 경춘은 소실인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어.
- ④ 하빈 : 금원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집에서 살면 금원과 경춘은 따로 나와 살아야 해.
- ⑤ 서준 : 경춘이 양반집 소실이 되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정실의 아이와 차별당할 수 있어.

15. 금원은 여행을 마친 후 자신이 지은 시와 기행문을 모아 책을 펴냈어요. 여러분도 금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가장 최근에 다녀온 여행을 떠올리며 기행문을 써 보세요(언제, 어디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가서, 무엇을 했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등 자세하게 쓰기).





독서단원
-독서 후

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
(독서 토의·토론)

글 : 강민경 그림 : 파이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금원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한 적이 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누구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 했더니 이젠 아예 남자의 옷을 입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로 한 것이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어머니는 남이 들을까 두려운지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노여움이 실려 있었다.
 “이토록 가고 싶습니다.” (24쪽)

2. 금원은 한양에서 관왕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를 도와줬어요. 금원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나도 금원처럼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힐끗 볼 뿐 자기 갈 길을 가기 바빴다. 금원도 모른 척 지나가려 했으나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소년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요?”
 금원이 다가서서 문자 문지기가 험한 표정으로 답했다.
 “잡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 우리 일이요. 상관 마시고 갈 길 가시오.”
 “그러나 이 아이가 잡인이 아니라 하지 않소. 간절히 빌 소원이 있다 하고 문세도 내는데, 옷차림이 불품없다고 무조건 막는 것은 나라님의 뜻이 아닌 듯하오. 이 아이가 들어가 허튼짓을 하면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 들여보내 주시오.” (121쪽)

3. 금원이 여행을 마치고 떠올린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길’이 무슨 의미일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구나.’
 무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남겨야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125쪽)

 <p>독서단원 -정답</p>	<p>조선 최초의 여성 여행가 김금원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독서 퀴즈)</p>	<p>초등학교 학년 반 번</p>
	<p>글 : 강민경 그림 : 파이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이름 : _____</p>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p>1. 김경춘 2. 김덕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td><td>②관</td><td></td><td>③낙</td><td></td><td></td><td>④기</td><td>암</td><td>괴</td><td>⑤석</td> </tr> <tr> <td>①호</td><td>동</td><td>서</td><td>락</td><td>기</td><td></td><td></td><td></td><td></td><td>장</td> </tr> <tr> <td></td><td>팔</td><td></td><td>장</td><td></td><td></td><td>⑥도</td><td>릉</td><td>이</td><td></td> </tr> <tr> <td></td><td>경</td><td></td><td>송</td><td></td><td></td><td>화</td><td></td><td></td><td>⑮외</td> </tr> <tr> <td></td><td></td><td></td><td></td><td>⑩객</td><td></td><td>⑦서</td><td>얼</td><td></td><td>나</td> </tr> <tr> <td></td><td></td><td></td><td>⑪시</td><td>주</td><td></td><td></td><td></td><td></td><td>무</td> </tr> <tr> <td></td><td></td><td></td><td>단</td><td></td><td></td><td></td><td></td><td></td><td>다</td> </tr> <tr> <td>⑧삼</td><td>호</td><td>⑨정</td><td></td><td></td><td></td><td>⑬규</td><td></td><td>⑭바</td><td>리</td> </tr> <tr> <td></td><td></td><td>전</td><td></td><td>⑫연</td><td>자</td><td>방</td><td>아</td><td></td><td></td> </tr> </table>		②관		③낙			④기	암	괴	⑤석	①호	동	서	락	기					장		팔		장			⑥도	릉	이			경		송			화			⑮외					⑩객		⑦서	얼		나				⑪시	주					무				단						다	⑧삼	호	⑨정				⑬규		⑭바	리			전		⑫연	자	방	아		
	②관		③낙			④기	암	괴	⑤석																																																																																		
①호	동	서	락	기					장																																																																																		
	팔		장			⑥도	릉	이																																																																																			
	경		송			화			⑮외																																																																																		
				⑩객		⑦서	얼		나																																																																																		
			⑪시	주					무																																																																																		
			단						다																																																																																		
⑧삼	호	⑨정				⑬규		⑭바	리																																																																																		
		전		⑫연	자	방	아																																																																																				

독서 퀴즈

1.

<p>① - ㉔ 금원이 순채 화재를 맞는다. ② - ㉓ 동자승이 금원에게 차를 만들어 준다.</p>	<p>③ - ㉔ 금원이 차 끓이는 아이와 《명심보감》을 읊다. ④ - ㉑ 금원이 여행했던 일을 책으로 써내다.</p>
---	---
2. 금원이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았고 일을 배우려 힘을 쓰면 쉽게 아팠기 때문에.
3. ④
4. 자신이 여자인 것을 들킬까 봐서, 남장을 한 게 마음에 걸려서 등.
5.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뿌듯해서, 자신이 한 일에 사람들이 고마워해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등.
6.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7. 처음 보는 광경에 설렘, 다른 여자들도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이 풍경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힘들게 온 보람을 느꼈다, 혹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니 더 오래 보고 싶었다 등.
8. 절은 집이 아니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9. 유누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원이 여자인 걸 알아서 유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인 유누와 금원이 함께하며 서로 마음을 다독이고 자기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
10. 가려움증을 고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가려움증이 잠잠할 때면 공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11.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는 금원이 대견해서 덕담을 해 주려고, 오랫동안 절에 머무르는 것을 보니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등
12. 익선관 / 곤룡포
13. ③

[해설]

① → 몸을 솟구쳐서 높거나 넓은 물건이나 장소를 넘다.
 ② → (비유적으로) 어려운 일 따위를 이겨 내다.
 ③ → (비유적으로) 일정한 범위나 표준에서 벗어나다.
 ④ → 차례를 걸러서 나아가다.
 ⑤ → 몸을 솟구쳐서 높거나 넓은 물건이나 장소를 넘다.

14. ④